東亞日報

發行人 金相万
編輯人 高在旭
印刷人 李彦鎮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139
東亞日報社
電話 交換臺 自③4111至4118 自⑧1901至1905
直通 普及部③3434 廣告部③8145
購讀料 1部4원·月定80원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그實踐要綱을 遵守한다.

고단위국민영양제 비타-엠

朴議長 民政移讓日程을 正式發表

大統領選擧 10月中旬 國會議員選擧 11月下旬

첫國會召集은 12月中旬

公告中의 改憲案撤回

選擧關係法整備에 萬全다짐

革命政府는 오는 10月中旬경에 大統領選擧를、11月下旬경에 國會議員選擧를 실시하고 12月中旬경에 새國會를 소집한다는 民政移讓「스케줄」을 公式으로 발표했다.

27日上午10時 朴正熙最高會議議長의 特別談話형식으로 발표된、이民政移讓계획에따라 最高會議는 이날上午、현재公告中인改正憲法改正案(軍政延長案)을 二十二名의 提案者(최고위원)中 현재남아있는 十七명의 서명을얻어 正式撤回했다. 李厚洛代辯人은、구체적인 選擧日字가 公告를통해 밝혀질것이라고 말했으나、정부는 大統領選擧를 10月15日、國會議員選擧를11月26日、새國會召集은 12月12日로 일단 내정하고있다. 이날 공표된 民政移讓「스케줄」은 다음과같다.

①公告中인 改正憲法의改正案의 撤回를위한措置를 즉시취한다. ②大統領選擧는 一九六三年10月中旬경에 실시하고、國會議員選擧는 11月下旬경에실시한다. ③公明正大한 選擧를위하여 정부는 選擧關係法의整備및 그運營에 萬全을 기한다. ④總選擧後 최초의國會는 12月中旬頃에 소집되며、동시에 第三共和國의 誕生이 宣布될것이다.

<朴 議 長>

朴議長談話要旨

朴正熙最高會議議長은27日 改正憲法에의한 總選擧실시계획에관한 담화를 발표하고「革命公約과 4·8聲明에서 국민에게약속한대로 民政移讓의 과업을 이행할것」을 다짐했다.

朴議長은 이담화에서 3·16聲明과 4·8聲明이 나가게된 背景을설명하고「지금까지 民政移讓의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할수 없었던 우리의政治現實에 대해 국민과더불어가슴아프게생각한다」고말했다.

朴議長은 革命理念을계승하는 건전한 民主的民政의 平和的誕生을 政治的至上課業으로 삼아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것을 밝히고「국민을 저버리거나 主權者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改革意欲을 貫徹强行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다」고 말하였다.

朴議長은 年內 民政移讓을 앞두고 政界에 새 風土와 氣風이 조성될것을 희망했다.

정밝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또한 정부가 民政이양계획을 공표한이상朝野合談은 필요없다는 방침을 거듭밝혔다.

領日 統大 選擧

9月5日에公告

朴議長、8月31日內로豫編視

정부는 大統領選擧日字를 오는9月5日에 公告할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選擧法은 선거일자를四十日전에公告토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정부는 9月5日公告—10月15日大統領선거의 日程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出馬公務員의 사임기간도 지난번 밝혀진대로 선거관계법개정을 통해 9月5日까지로 정할것같으며、朴議長은 8月31日의 共和黨全黨大會에 앞서 豫編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選擧關係 法의改正

7月中完了

他黨候補運動許容에아직兩論

最高會議는 選擧關係法의 整備、改正을 7月中에 끝낼것이라고 27日李厚洛代辯人이 밝혔다.

그는 他黨候補運動許容과 政黨推薦人의 選委參與동은 朴議長이『野黨側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各分委長들에게지시한바 있으나、그것이憲法解釋上 可能한것인가의 與否를 둘러싸고 최고위원들사이에 兩論이 있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今明間 常任委員會에서 정식으로는 의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朴議長의 民政參與는 共和黨의 건의에따를것이며 적당한때에 직

選擧體制로轉換

與…共和·自民 두갈래의組織

野…三黨統合 成就에 急핏치

民政移讓「스케줄」의 確定발표는 與·野 두갈래의 統合工作으로 昏迷를 거듭해온 政局을 選擧體制로 크게 바꾸어놓았다. 單一化工作을 벌여온 親與勢力은 정부 計劃을 전적으로 歡迎했고、統合協商을 推進하고있는 在野勢力들은27日10月大統領·11月國會議員選擧를 못박은 軍政當局의 方針이 ①選擧法改正方針이 不透明하고 ②選擧管理內閣을構成하지 않으려는데 不滿을 품으면서도 變態되면 軍政延長의 可能性이 없어졌다는데 대체로 환영—三個月앞으로 박두한 選擧戰에臨한 自體陣容整備에 각기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全面合作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親與勢力은 共和黨이 26日부터 得票工作에 重點을둔 地區黨組織改編을再開했고 이에맞선 自民黨역시 地方組織에착수함으로써 親與聯合戰線의 可能性을품은 두갈래의 獨自的인 選擧體制가 마련되고있고、한편 在野陣營역시 民政、新政、民友三黨의 統合協商이 月末妥結을 目標로 急進展을 보이고있는가하면、三黨首腦들이 協商成敗에 관계없이 8月末까지는大統領候補를 指名해야하는 時間的制約때문에 月末부터는 獨自的인 選擧體制를 갖추려고 벼르고있어 8月初부터는 本格的인選擧前哨戰이 벌어질것같다.

三黨統合急進展

來週初「국민의당」準委結成

民政黨法統利用과白紙化로新黨을결성하자는 엇갈린주장으로 妥結되기어려운 고비에다달았던民政·新政·民友三黨統合協商은 來週初에「국민의당」創黨籌備機構를結成할단계에까지 急進展을보았다.

27日하오第7次實務者會談을통해서 新政黨측은來週初에 三黨에서十五명씩의대표와 기타政派대표十五명을합쳐 도합六十명으로「국민의당」創黨籌備機構를結成할것을제의했다.

이提議가나오기까지 協商이급진전된 이유는法統이용을 고집해오던民政黨이 26日企劃委에서 新政黨주장대로「白紙化新黨結成」을 찬성한다는원칙에합의했기때문이다.

民政黨은 이讓步대신에 地區黨組織責임명에관한비율을 절제하고 人物本位로 組織責을 임명토록하자는 代案을 내세웠으며 新政黨도 이代案에 찬성하고있다.

各黨反響

또飜意없기를

民政移讓「스케줄」발표에 대한 各黨反響은 다음과같다.

▲共和黨徐仁錫代辯人=숙제로 남아왔던 軍政延長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고 연내 民政移讓이 확고해진것으로 이를기뻐한다. 選擧時期에 관해서는 농번기를피했고、憲法에규정된 民政移讓「데드라인」인 12月26日까지 충분한 여유를두고있으므로 대체로適期라고본다.

▲民政黨李忠煥代辯人=民政移讓「스케줄」발표는 국민에게 감명을 주는것은아니다、그것만으로도한가닥 希望을보여준다. 무슨이유로든 다시飜意않길바란다. 朴議長의 지위에대해조금도 言及하지않았다는사실은 政界를 불투명한상태로계속시키려는것이다.

▲新政黨宋元英代辯人=民政移讓「스케줄」을 發表한것은 晩時之歎은 있으나 다행한일로 환영한다. 다만 飜覆의 전례가 再演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選擧關係法改正과 그「운영」의 공정을 위해서는 法改正에있어 野黨側과 협의하는동시에 選擧管理內閣을 구성함으로써 충족될것이다.

▲民主黨金大中代辯人=晩時之歎은 있지만 政府의 확실한 방침이 발표된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政府당국에 부탁할것은① 이번만은 어떠한이유로든 飜意없기를 바라며 ②選擧關係法의 改正뿐만아니라 特例法의폐지、選擧內閣의구성、出馬하는 모든最高委員의 公職辭退를 실천함으로써 假裝된 民政移讓이 아니라民主的民政移讓이 되도록해야할것이다.

▲自民黨白光河代辯人=公明選擧를위한 法的措置까지取하게되었다니 双手를들어환영하는바이며 이시變動없는 確固한「스케줄」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政府…改憲案撤回公告

정부는 27日하오 朴議長의 3·16聲明에의한 軍政四年延長을 내용으로한 改正憲法의 改正提案에관한 公告를 철회할것을 公告했다.

營農資金 生産者에 前渡

最高議、糧穀管理法을改正

最高會議常任委員會는26日하오 糧穀管理法中改正法案을 審議通過시켰다. 이改正案은 糧穀의 需給調節을 위해 糧穀換買制度와 交換制度를 新設하려는 것으로서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農林部長官은 立稻先買를 막기위해 營農資金 또는 기타 買入할 糧穀代金을 生産者에게 前渡할수 있게 한다.

▲農林部長官은政府管理糧穀을 糧穀需給調節과 國民食生活改善및 米穀節約을위해 必要한 糧穀으로 交換할수 있게한다.

朴議長禮訪

하우즈大將

新任「유엔」軍司令官「해밀튼·H·하우즈」大將은 26日하오 前任「멜로이」大將과함께「버거」美大使의 안내로 新任인사차、朴議長을 禮訪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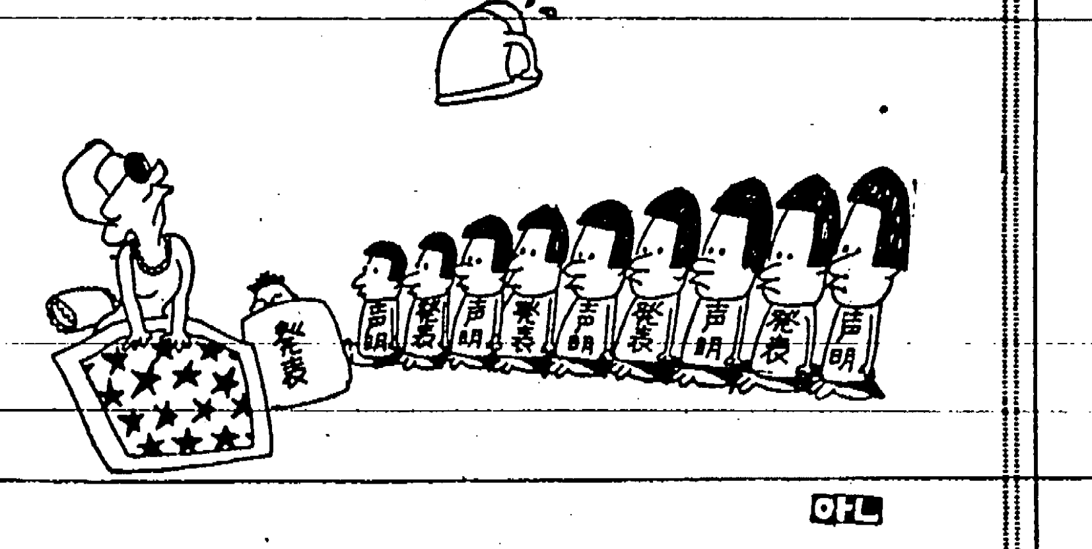
政府機構大幅改編을回避

最高議、內務委에再檢討指示

最高會議 常任委員會는 26日하오 政府機構를部分的으로만 改編키로 하고 政府組織法改正案을 다시 檢討토록 內務委員會에지시했다.

常任委는 政府의大規模的인改編을 피하기로하였는데 鐵道廳新設등의 必要不可缺한것만을 改編토록할것이라고 한다.

民政『家族非計劃』



이젠 제발 좀 그만 낳으시오…

金溶植外務長官(左)이 26日 韓·日漁業問題를 討議하기위해 日本外務省으로 大平日本外相을 訪問하여 그와 握手를하고있다. 【東京26日AP同和】

假定的原則提示된듯

〃12浬案받되 그外水域에 應分의規制〃

韓日外相 1次會談

『漁協』은 請求權과 別途로

【東京=權五琦特派員27日發】漁業문제를 중심으로 金·大平 韓·日兩國外相의 第1次會談결과에대해 公式으로는 進展이 있었다는 示唆가없었으나 26日下午3時부터 두時間半에걸친 첫會談에서 서로가 보다구체적檢討를 필요로하는어떤「假定的原則」이 提示된것은 분명하다.

당초 예정된 29日의第2次會談을 30日로 延期하여야할만큼 새로운 實務者級討議를 하기로한「假定的原則」이 어떤것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①韓國이 專管水域十二浬案을 받아들이되「兩國의 漁業能力差를 좁히기위해」그밖의 水域의 應分의 規制를한다. ②日本側은 請求權관계의 돈과 別途의 漁業協力을하되 그額과 條件은 大藏省등과 合意해서 정한다—는등으로 그 해결의 假定의 구체적전개를 따지는것으로 알려졌다.

27日實務者會談을開催

金長官談 〃日서誠意를表示〃

金長官은、會談의결과「日本측이 漁業協調에 성의를 가진것을 알게되었다」고 말하고、30日의第2次會談에서 原則合意의 가능성이 全無하지는않다고 전망했다. 漁業實務者들은 27日上午10時부터 새로운 검토를위한 회합을 가졌다. 그러나 검토가30日까지 반드시 끝나서 外相끼리 그 假定을 정식으로 合意하기에 이를지는 아직半半이라는관측이유력한데、그것은 원칙의 마련이 아주세밀한 기술적인 검토없이는 실지에있어 큰의미가 없기때문이다.

30日二次會談

金·大平共同聲明

【東京=權特派員27日發】26日下午 金·大平兩國外相의 第1次會談이끝난뒤에 발표된 共同聲明內容은다음과같다.

①會談이 지극히 솔직하고 友好的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②韓日兩國外相은 한결같이 懸案문제의 早期妥結을 위하여 노력할것에 합의하였으며 ③會談은 주로 當面한 漁業문제중 專管水域및 漁業協力문제에관하여 기탄없는 의견이교환되었으며 상호입장에대한 이해를 깊이하는한편 今後專門家간에 조속히문제점을 정리검토토록했고 ④第二次外相會談을 30日下午3時30分에 續開한다.

場所許可없어延期

韓日問題鬪委講演

韓日問題汎野鬪爭委員會가 28日下午5時 校洞國民學校에서 열기로했던講演會場所許可가 내리지않아 당분간 延期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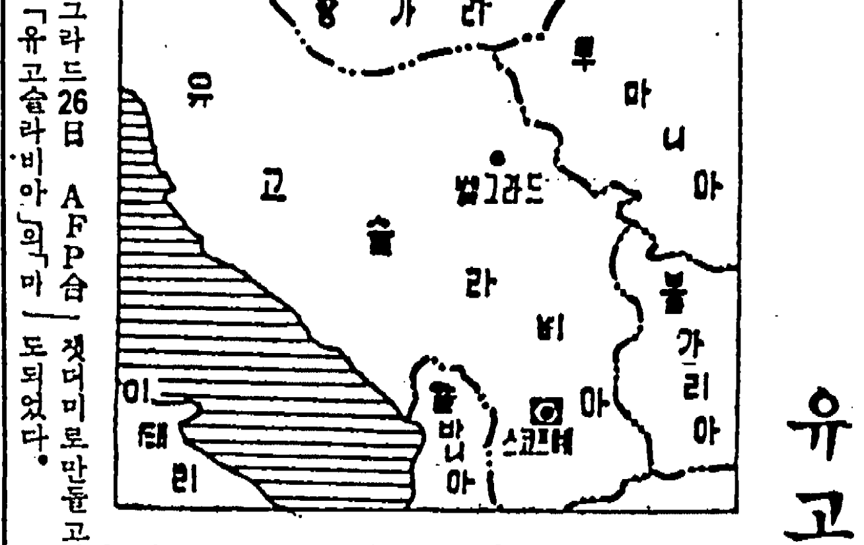
金相福少將任命

論山訓練所長

정부는 8月1日字로 論山訓練所長에 金相福陸軍少將을 任命發令했다.

死亡만 約萬名

유고「스코프예」市에 큰地震



【벨그라드26日AFP合同】「유고슬라비아」의「마케도니아」州수도「스코플예」시에서 26일새벽 일어난 현대사상 가장심했던 지진은 약만명의 생명을 앗아갔고인구二十만의「스코플예」시의 四분의三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스코플예」시로 달려간 구호대들은 26일수백구의 시체를건져냈고 헤아릴수없는 수많은 부상자를 인접도시「프리스티나」로 운반하고있는데「프리스티나」시는 현재밀려드는부상자들때문에전도시가 송두리째 병원이되다시피하고있다. 一九一五년이래 歐羅巴최대의지진으로 간주되는 이무서운 지진은 26일새벽 다섯시에 아무예고도없이「스코플예」시에 습래하여삼시간에 도시중심지일대를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동시에 물과전기는 완전히끊어져 인구二十만의 이도시는 문자그대로 암흑도시로 변해버렸다.

休戰期間 明示안돼있다

金國防、北傀虛言을反駁

休戰10周年을 맞이하여 27日 金聖恩國防部長官은、北韓傀儡가 兵力과裝備를 날로 증강하고있음을 警告하는「국민에게보내는「메시지」」를발표했다. 이「메시지」에서 金長官은『대량의 간첩을南派시키고있는 北傀가 최근에와서 十年이 지났으므로 休戰協定의 有效期間이 今年으로 상실된다는 虛言을 流布시켜 전혀 根據없는 戰爭再發의 가능성을 은근히 示唆함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책동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 休戰協定에는 休戰期間이 명시되어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횡설수설

◆地方에있는 嬰兒院에서 거두어기르는 외로운 갓난이들에게 配給된 구호양식들을 院長과職員이 가로채서、두어해동안 마흔셋명이나「營養不足으로 죽게」했다는 新聞報道는 끔찍스러운 衝擊을 주는 크나큰 事件이다. 嫌疑者두명이 問招받고 있으므로 아직 그罪狀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더라도、만일 사실과 틀림없다면 무도한 그 罪惡、重罰을 받아 마땅하다. ◆孤兒園이다 保育院이다 嬰兒院이다 이름하는 一部社會慈善事業家 가운데엔、美名을 달아 私腹을 채우는 憑公營私의 族屬이 지나간 날에 적지않았다. 美軍政시대에 만해도、「유엔」軍當局이 우리의 불쌍한 孤兒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옷가지와 物資들을 횡령、빼돌려 먹은 것도 있고 또 法의 그물에 걸린 僞善者들은 드물지 않았다. ◆友邦人으로서 孤兒의 救世主라는「헤스」大領같은이나、얼마전 作故한 吳兢善翁같은분도 있거니、어버이없는 자기나라 어린것들을 잘키우라고 딴나라 사람들과 딴나라政府가 보태주는 食品·衣類들을 집어 먹는 者들은 人間이며 同族이랄수는 없다. 그러한假面의 무리가 겨레를 망신시키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불이다. ◆또한 그통에 善良하고 眞實한 社會奉仕者들이 애꿎게 汚名을 함께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다. 그들을위해선 실로 미안스러운일이다. ◆이른바 慈善이나 公益事業에 종사하는 사람은 聖者와같은 맑은마음씨를 가지라고 했다. 티끌만한 私慾도 마음속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버리고、不遇한 다른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公心을 갖는다면、羊頭를내걸고 狗肉을 파는 奸商배나 다름없다. 「博愛」라는 간판아래서 不勞所得에만 熱中하는 似而非慈善家들에겐 法의 심판보다도「人道의 背信者」로서 社會의 규탄을 받아야한다. 部類들이다. ◆오죽해서 남의어버이의 품에서 길러우겠는가하는 생각부터 가져본다. 同族相殘의 悲劇이 낳은 수많은 이나라 戰爭孤兒들、또 제아비·어미는 번히 살아 있으면서도 生活難이나 不倫의 씨로 생겨진 棄兒들—人情과 눈물이 마른 爲人들은 애초 그들을 받아 發育할 자격이 없다. 「남의자식도 내자식처럼」—이愛恤心이 慈善事業하는 사람들에겐 첫 敎條가돼야한다. 그리고 그리되려면속과 겉이 꼭같게 殉敎者 같은 聖心을 갖는것이 앞서야 한다. 길에서 헐벗고 굶주림에 우는 한乞人에게 行人이 불쌍히 여겨 돈을 던져준다—이것을 본 딴놈은 욕기가생겨 그돈을 앗아 떼앗는다—만약 이러한 惡德漢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다붙일것인가.

明日 定期休刊

우리 文藝의 二十世紀的 開花!

二十世紀講座3

二十世紀의文藝

各卷 定價 三〇〇원 豫約價 二五〇원

博友社刊

白鐵敎授 責任編纂

Ⅰ 二十世紀文藝의 出發點
世紀末의 藝術的 風土……趙芝薰
兩次大戰과 反戰의 藝術……金思燁
科學文明과 藝術革命……方根澤
人間의 危機와 現代藝術의 姿勢……金碩浩
Ⅱ 現代藝術의 理論과 背景
二十世紀藝術의 歷史的 反省……白鐵
音의 現代藝術哲學……李昌培
現代文藝와 모랄리티의 問題……李泰煥
프로이드心理學과 現代文藝……李佳炯
Ⅲ 實驗藝術의 現代的 타입
現代文學과 言語의 技巧……주요섭
抽象派의 詩歌와 그 위의 話題……金秉騏
電子音樂을 理解하는 길……朴容九
二十世紀와 舞踊革命……呂石基
映畫藝術의 進路……이영
〈세미나〉 現代藝術과 韓國藝術의 方向……(各界藝術人十四名參加)
韓國文藝의 二十世紀發見
▽民族藝術의 理念的 基礎……郭鍾元
▽比較文學의 韓國的 試圖……具河潤
▽모더니즘의 功過……柳宗鎬
▽韓國의 文學的 風土……李軒求
▽藝術人의 社會參與……李哲範
▽現代藝術과 大衆……鮮于煇
▽演劇의 韓國的 自我……吳泰錫
▽文學的 世代論……辛東門
▽韓國音樂의 方向……金聖泰
〈特別寄稿〉
韓國人의 藝術的 發想……러프
思想의 主體性과 文化의 均等性……金亨錫
二十世紀藝術의 星座〈共同課題〉
*다다이즘·쉬르레알리즘……丘常
*表現·新卽物·未來主義……李東昇
*이미지스트……朴泰鎭
*主知主義……崔昌鎬
*意識의 흐름의 作家들……尹永春
*社會主義 리얼리즘……金鵬秀
*로스트 제너레이션……朴熙永
*新浪漫主義……鄭斗植
*實存文學……鄭明煥
*앵그리 영멘……金鎭萬
*비트 제너레이션……朴承薰
*解氷文學의 宿命……南廷鄒
*前衛映畫의 系譜……金正鈺
*뉴크리티시즘……金容權
*反小說·反演劇의 試圖……李根三

旣刊販賣中!
第一卷 責任編纂 朴鍾鴻 二十世紀의課題
第二卷 責任編纂 金亨錫 二十世紀의思潮

●海辺의 波濤소리가 月刊誌 아리랑에!●

아리랑 9月號 定價 60원 아리랑社發行

■ 내가 본 朴議長……李容相
■金七星 人生硏究 愈·慾望·男性에 關한 章 ■歌手硏究, 尹福姬편 ■ 란탄 燈불밑에 胡弓은 울어……黃文平
■ 개구장이의 落書·終回……劉漢徹 ■ 歌手가 되려는 A양에게……孫夕友 ■ 30年警查·追憶의 搜査秘話 ①…李星千
■ 玄海灘 푸른 波濤탄 부푼 21세—孔美都里편 ■ 映畫는 이렇게 보는 것……金永信 ■ 崔喜準 장가가는 날의 12時間

本誌獨占 許長江 被訴事件의 앞과 뒤

連載 人生正會員(4)……趙欣坡
傾斜진 밤(9)……李慶載
●순진한 가슴 뒤에 불꽃튀는 그 젊음 主將 南銀野球팀……金百萬군
●H 體育記者의 落穗帖에서 庭球/蹴球/野球/籃球
●갤런티是非·푸로拳鬪 화이팅머니가 얼마나?
●화인 플레이! 우리의 白仁天군
●이달의 플레이어/强속의 天才 卓球大王 丁炳卓군
●사나이의 눈물을 자아낸 자랑스러운 311승 金田正一
스포오츠 아리랑
리스톤도 내주먹엔 8回에 KO되리 캐시우스 클레이

連載 처칠夫人回想錄/내사랑 크레멘타인·2
背反者로 몰리운 男便 도우며… 재크·윗슨
■ 그 女人을 위한 短篇小說·에레지……李丙求
■ 검은 傷處의 부루스·……朴椿石
診療室·處女時節性經驗에 對한 不安과 苦悶 女醫 孫永姬
■ 무으드의 散策·포에마탱고 남의속도 모르고 HLKA 유악계……南相國
그대와 나만의 속삭임 〈돌아오지않는 海兵〉의 作者로서…張國鎭
■ 영국 모나코 皇室의 子女들은 이렇게 자라난다.
마이크 걸머지고 BG〈飛將秘書課 朴明子양〉인터뷰 朴鎭世아나·三·
마드모아젤 아리랑

合本附錄● 씨나리오全載 玄海灘의 구름다리

이달의 表紙 孔美都里양